

보도 일시	2023. 3. 27.(월) 14:00 3. 27.(월) 석간	배 포 일시	2023. 3. 24.(금) 18:00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	책임자	과 장 김기연 (044-201-2131)
		담당자	서기관 유대열 (044-201-2137)

농업의 신성장 동력, '그린바이오'로 뭉친다!

-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개최 및 농식품부-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-

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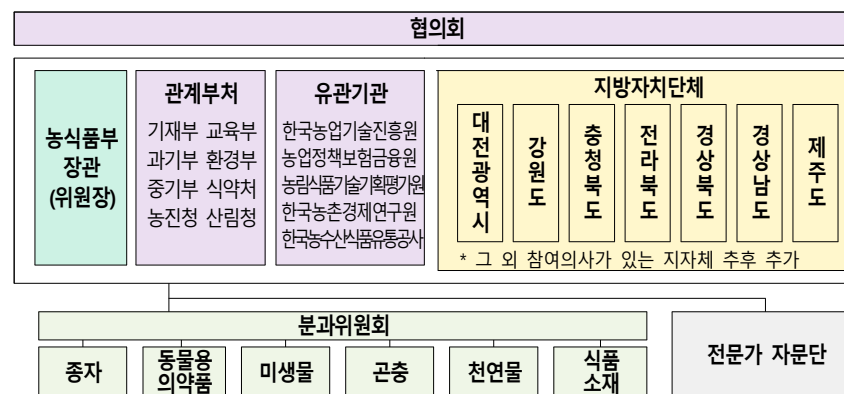
-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혁신,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해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개최
- 정부 부처(농식품부장관 등), 지자체(강원도지사, 전북도지사 등), 유관기관, 전문가, 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
- 그린바이오 우수사례 소개 및 선도기업 방문
 - 천연물 제품(두유) 기업-농가 상생사례(대학두유㈜),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(주에코비즈넷), 식물백신 활용 가축질병 예방 사례(주바이오애플) 등
-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, 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,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식품부-지자체 업무협약(MOU) 체결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*에서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을 가졌다.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,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하였고, 5개 지자체(대전, 충북, 경북, 경남, 제주)의 부시장·부지사, 정부부처, 유관기관장,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였다.

*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소재지로 다양한 그린바이오 산학 협력 인프라 보유(그린바이오 벤처캐프스(예정), 농생명산업하위원센터, 디자인동물센터 등)

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‘원팀’으로 빠르게 해결하고, 규제 개선,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, 정부 부처, 유관기관,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를 운영할 계획이다.

<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(안)>



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었으며,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-농가 상생사례(대학두유㈜, 강원),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(㈜에코비즈넷, 전북),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(㈜바이오앳, 경북) 등이 소개되었다.

< 기업-농가 상생, 수출 촉진 등 그린바이오 혁신 우수사례 >

기업명 (지역)	성과 유형	주요내용
대학두유㈜ (강원)	상생	플라보노이드 성분 함량이 높은 강원지역 약콩(일반 콩에 비해 2.9배)을 활용, 강원도농업기술원 신품종 약선콩 개발 및 공급, 특허기술 전목한 기능성 두유 제품 개발, 작목반(평창약콩연구회)을 구성, 재배농가 출자 참여로 수익 공유 및 원료공급 안정화, 평창지역 두유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협력 확대,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
㈜에코비즈넷 (전북)	수출	사료첨가제용 미생물 배양기와 배양원료를 묶음 수출하여, 미생물제제 단품 수출 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해결 및 장기대 수출수량 증가적 확보 가능
㈜바이오엠피 (경북)	혁신	식물 기반 돼지열병(CSF) 백신을 개발하여 제주지역 돼지열병 청정지역 복구를 위한 보급사업 추진

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(주)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, 기업·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어를 매개로 한 기업-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였다. 대학두유(주)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지 내 공장을 설립하였으며,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(113농가)하여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.

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(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)과 함께 지자체·학계·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,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.

한편,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·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,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.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정 장관은 “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,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,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”이라며, “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·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,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”이라 강조했다. 아울러, “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계획(안)
2. 그린바이오 우수사례 소개 주요 내용



붙임 1

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계획(안)

□ 행사 개요

- (목적)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혁신,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해 「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」 발족식 개최
- (일시·장소) 3.27(월), 13:10~14:45/ 강원도 평창(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)
* 강원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
- (참석자) 농식품부(정황근 장관(위원장)), 지자체(도지사), 관계부처, 기업, 전문가, 유관기관, 6대 분야 거점기관 등 40명

□ 주요 내용

- (현장견학) 그린바이오 산업지원 인프라 및 기업-농가 상생, 수출 등 우수사례 소개, 제품 전시 관람, 선도기업(대학두유(주)) 견학 등
- (발족식)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MOU(농식품부-지자체), 기조강연, 「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」 및 협의회 운영계획 설명, 토론 등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주요 일정	비고
1부 현장견학 (40')	13:00~13:10	▶ 도착 및 환담
	13:10~13:30	▶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 인프라 및 기업-농가 상생 등 우수사례 소개, 제품전시 관람(20')
	13:30~13:35	* 이동(5')(1층 로비 → 대학두유 공장)
	13:35~13:45	▶ 선도기업 방문(대학두유)(10')
	13:45~13:50	* 이동(5')(대학두유 공장 → 본관)
2부 발족식 (55')	13:50~13:59	▶ 인사말씀 및 환영사(9')
	13:59~14:03	▶ 기조강연(4') -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
	14:03~14:07	▶ 「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」 및 협의회 운영계획 설명(4')
	14:07~14:37	▶ 토론(30')
	14:37~14:40	* 이동(2층 회의실 → 1층 로비)(3')
	14:40~14:43	▶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MOU(농식품부-지자체)(3')
	14:43~14:45	▶ 기념사진 촬영(2')

① (대학두유) 강원지역 약콩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및 기업-농가 상생 사례

- * 대학두유(주)는 강원지역 약콩(일반 검은콩 대비 플라보노이드 2.9배 높음)에 서울대 특허기술(약콩 유산균 발효물 및 항상성 유지 유근피 추출물 보강) 적용한 두유제품 출시



<‘약콩100’ 두유>

- * 기업이 지역농가 작목반을 직접 구성(총 113농가)하여 계약재배(약 25만평)를 통해 약콩을 연간 약 200톤 수매(약 12억원)하고 타기업에도 소재 공급 중(‘22년 매출액 약 29억원)

② (바이오엠펙) 식물기반 동물용백신*을

개발하여 제주지역 돼지열병(CSF**) 청정지역 복귀를 위한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



<식물기반 돼지열병 백신 ‘허바백’>

- * 식물체에 항원단백질을 재조합하는 방식의 식물백신은 가격경쟁력이 높음(수입백신 대비 80% 수준)

**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, 돼지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강하고 폐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 바이러스성 전염병(ASF와 다름)

③ (에코비즈넷)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기, 배양키트, 맞춤형 품질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영농기업이 미생물 제제를 자체 생산하도록 지원



<에코비즈넷의 배양기, 배양키트>

- 미생물 제제 수출 과정에서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수출 모델(베트남,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출계약 체결 중)